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김영수	**성 별**	남성	**출생연도**	1956
면담자	조연희	**소 속**	학산문화원	**검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1	**면담지원**	이혜숙		
면담 일시	2025 년 8 월 21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15분 4초
자료번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 개요	한국파이프에 1981년 입사해 2019년 부사장으로 퇴직한 구술자는 약 40년간 인천 산업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급격한 산업화 속 파이프는 모든 기간산업의 기반이었고, 회사는 지역 고용과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강했으며 식당·운전기사까지 모두 정직원으로 운영될 만큼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1994년 부도는 경영 공백과 자금 순환 문제로 발생한 '흑자 부도'였으나 법원의 회생 판결로 회사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는 해외 파견과 수출 업무를 통해 많은 성장을 경험했으며, 사라져가는 산업 현장을 기록하는 이번 구술 작업이 지역의 기억과 산업 유산을 되살리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색인어	한국파이프, 동양화학, 사우디아라비아, 일신제강, 한관산기, 신호그룹, 한국산업은행, 중국, 철강, 파이프, 원대강, 자동화설비, 교대근무, 구내식당, 정직원, 월급봉투, 통근버스, 해외진출, 공장이전, 구사대, 부도사태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근황 및 개인 신상		
- 1956년 8월 19일 출생.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남 - 중고등학교는 춘천에서 다니고, 1983년 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로 왔음 - 전기공학 전공. 당시 공과대학이 전망이 좋아 전기 계통에서 근무하기 위해 전공 선택	00:04:25 ~ 00:05:40	
2. 한국 파이프 입사 당시 분위기 및 성장	00:05:41	
- 1981년 입사 당시 한국파이프의 분위기를 "확장기에 접어든 시점"으로 기억	~ 00:12:34	

- 당시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의 신입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 - 그해 신입사원만 약 60명이 입사했으며, 전체 직원 수는 약 500명 수준 - 이후 회사 규모가 최대일 때는 약 80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회고 - 한국파이프 입사를 선택한 주요 이유로 '성장성'과 '입지적 장점'을 말함 - 당시에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드물었기 때문에, 회사의 사우디·베네수엘라 진출 계획이 큰 매력으로 작용 - 당시 지역사회에서 한국파이프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음을 강조 - 한국파이프가 생산하는 강관(파이프)은 건축·토목·농업·배관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 자재 - 당시 회사는 미국 등 해외로의 수출량도 상당했으며,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늘리기 전에는 일본산 원재료(열연강판, 원대강)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파이프 제조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용 자재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한국파이프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판단하고 사우디 측과 협력하여 현지에 공장을 설립		
3. 월급날의 추억	00:12:39 ~ 00:15:23	
- 수습 기간 두 달 동안 227,000원, 정식 전환 후 약 260,000원을 수령 - 당시 생활비로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회고 - 급여에서 약 15만 원을 적금으로 납입했고, 나머지 약 1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했다고 설명 - 급여명세 내역에 의료보험료 3,5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료보험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었음을 확인 - 월급날(매월 25일)에는 회사 주변 식당·주점 주인들이 외상 장부를 들고 경비실 앞에서 직원들을 기다렸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아 외상액을 정산 -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외상 결제 문화가 일반적이었다고		
4. 전기 설비의 보전 업무와 애로사항	00:15:31 ~ 00:24:50	
- 입사 후 전기설비 보전 업무를 맡음 - 전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투입 초기에는 설비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회상 - 당시 회사는 일본산 설비를 다수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엔지니어의 원칙 중심·정밀한 작업 방식을 경험 - 1970~80년대 당시 철강 공장은 12시간~18시간 교대근무가 일반적 - 작업 환경은 고온·매연 등 열악했으며, 냉방시설도 부족했지만 당시 근로자들은 이를 힘들다기보다 생산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과 보람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		

- 과거 세대의 노력 덕분에 현재 세대가 누리는 발전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		
5. 당시 여성 노동자 현황	00:24:16 ~ 00:25:14	
- 입사 초기 공장 현장에는 여성 근로자가 전무 - 여성 직원은 사무직에만 약 10% 내외로, 업무 대부분 사무 보조 - 대부분의 여성 직원이 미혼 상태에서 근무하다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		
6. 자동화 설비 도입과 해외 수출	00:25:15 ~ 00:30:20	
- 1980년대가 한국파이프에서도 자동화 설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였다고 설명 - 자동화 도입에 따른 안전 환경 개선 - 자동화 도입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인식과 달리, 구술자는 당시에는 설비 확충과 판매량 증가가 병행되어 인력이 오히려 늘었던 시기 - 입사 초기부터 퇴직 시점까지 설비·기술·작업환경이 발전하는 전 과정을 지켜본 것에 대해 높은 보람과 흥미를 느꼈다고 회상 - 제조업 특성상 생산 실적을 매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만족감이었다고 설명 - 여러 해외 연수·출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인도 검사원들과의 협업을 꼽음		
7. 중국과의 수교	00:30:21 ~ 00:34:50	
- 입사 초기 회사 강당에서 중국(당시 중공) 교수 1인을 초청해 전 직원 대상 강연이 진행된 일을 기억 - 강연 후 회사가 교수에게 자전거를 선물 - 해당 초청 강연은 1992년 한·중 수교 이전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 차원의 이례적인 국제 교류 사례였으며, 통역을 동반한 정식 강연으로 약 1시간 진행 - 초대 대표였던 윤상준 사장(한국강관 설립자)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 외부 강사 초빙 등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 - 회사는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 - 급여가 단 한 번도 연체되지 않았던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꼽음		
8. 부도와 직원들의 결속	00:35:44 ~ 00:43:45	
- IMF 시기에도 공장 생산직 인력은 거의 감축되지 않았으며, 일부 사무직 조정 외에는 유지되었다고 회고 - 초기 회사 부도 당시에는 직원들이 ‘구사대(救社隊)’를 구성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단결 - 초기 부도 사태는 사회적으로도 큰 사건이었으며, 회사 규모가 컸		

기 때문에 MBC 9시 뉴스 톱기사로 보도될 정도로 주목을 받음 - 목포 신공장에는 독일·미국·일본의 최신 설비가 수입되는 과정이었고, 이때 부도가 발생하면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을 경험		
9. 당시 회식 문화와 출퇴근 풍경	00:43:46 ~ 00:48:00	
- 당시 회식 문화가 지금처럼 큰 비용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월 1회 정도의 회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설명 - 대표적인 장소로는 풍림아이원-동사무소로 이어지는 삼거리 인근의 막걸리 골목을 언급. 해당 지역에는 서너 곳의 단골 가게가 있었다고 회상 - 회사에서는 서울-인천 간 직원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 - 입사 초기 서울 수유리에서 동대문 운동장까지 이동한 뒤, 동대문에서 출발하는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했다고 설명 - 통근버스는 문래동 출발 → 점진적 축소 → 폐지의 과정을 거쳤다고 함 - 1983년경 인천으로 이주하였고, 당시 부평·부천 일대는 도심이 개발되기 전으로 논밭과 드문드문한 역세권 중심 구조가 남아 있었으며 신호등도 거의 없어 통근버스가 막힘 없이 다닐 수 있었다고 설명		
10. 사내 구성원과 복지	00:48:01 ~ 00:54:58	
- 당시 통근버스 기사와 구내식당 종사자들까지 모두 회사 정직원이었다고 설명 -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직접 빵을 구워 직원 간식으로 제공 - 직원 간 유대감과 공동체 문화였다고 회상		
11. 부도 전후 상황	00:54:59 ~ 00:59:46	
- 부도 시점을 “폐업”이라기보다 경영상 위기와 구조 변화의 시기로 설명. 청춘을 바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인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고 회고 - IMF 시기에도 회사는 월급 체불 없이 정상 지급, 특근비 지급 유지 - 실제 적자 때문이 아니라 ‘흑자 부도’였다는 점을 강조 - 통상적인 청산 절차가 아닌 “회사를 파산시키지 않고 회생을 허용”하는 이례적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 - 1981년 입사 후 2019년까지 총 38년간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회사가 끝내 무너지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회상		
12. 동양화학의 기억	00:59:47 ~ 01:09:34	
- 한국파이프와 동양화학 간에 조직적인 교류나 협력은 없었다고 말함 - 다만 가성소다 등 일부 화학물질을 구매해 사용한 정도의 실무적 연결만 있었다고 설명 - 당시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원가 절감·외주화 개념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운영 - 이는 당시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철강 산업 자체가 규모의 경제 기반으로 수익성이 매우 높았던 시대 상황과 맞물려 가능했던 구조		
13. 인천 지역 산업사에 한국 파이프	01:09:35 ~ 01:12:11	
- 한국파이프를 인천 산업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기업으로 평가 - 파이프는 국가 기간산업의 뼈대에 해당하는 필수 소재로, 건설 · 에너지 · 플랜트 · 석유 운송 등 거의 모든 산업 기반에 사용 -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며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표현 - 자신이 느꼈던 보람과 자부심을 이어 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함		
14. 마무리 소감	01:12:12 ~ 01:15:04	
-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지는 것이 과거의 노동과 산업의 기억”이라며, 이러한 조사 · 아카이브 활동이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